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3단계 사업 올해부터 시작

LINC 3.0...59개 대학 선정 1045억원 지원 경쟁력 확보·인재육성 1·2단계 사업 조선이공대 등 호남지역 대학 교육혁신 분야 큰 성과 첨단산업 중심 전공교육 재구조화...대학별 산학연 브랜드화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 신입생 총원 문제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전문대는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인 충원율이 84.4%에 그친 바 있다. 하지만 전문대의 취업률은 일반대학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 졸업생 기준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 18곳의 평균 취업률은 73.2%였다. 4년제 대학 17곳의 평균 취업률 62.5%에 비해 10.6%p 높았다. 그러나 전문대 취업률은 2020년(76.2%)에 비해 3.1%p 하락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확충이 더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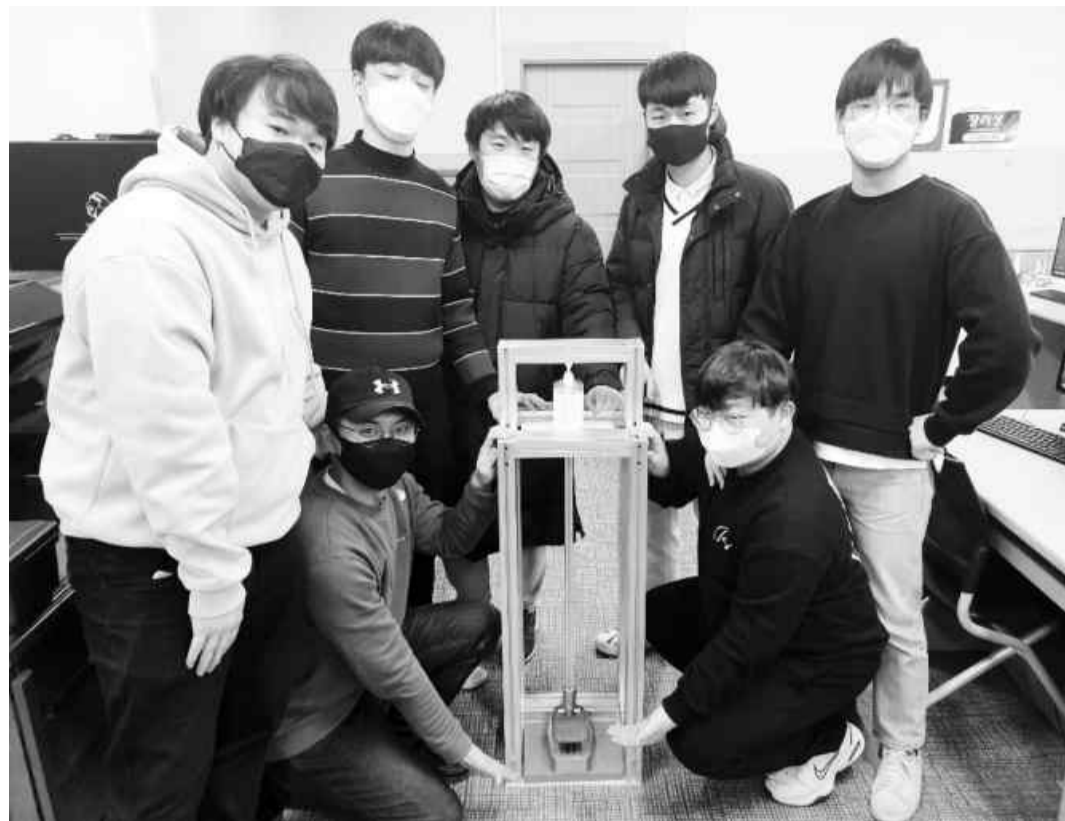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LINC)사업' = 정부는 청년들의 미래를 열기 위한 취업역량 지원에 힘쓰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학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년 단위로 2단계에 걸쳐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LINC)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LINC)사업'은 산학협력 진화형으로 전문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 전문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단계 LINC 사업에서는 30개 전문대학에 총 188억 원을 지원했다. 대학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 2단계 LINC+사업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55개 전문대학에 총 945억 원을 투입했다.

LINC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장조사, 디자인 지원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 산학협력 원스톱 토탈 지원센터인 15개의 '기업인속대응센터(URI)'가 구축되었으며, 2단계 LINC+ 사업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취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채용까지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맞춤형학과'가 확산됐다. 2021년 기준으로 40개 참여대학에서 평균 9.1개의 사회맞춤형학과가 신설됐으며, 기업과 공동으로 총 5236개의 교과목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LINC 사업에 참여한 호남 지역 전문대들은 특히 교육혁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년간 1, 2단계 LINC 사업에 계속 참여해온 원광보건대학교는 학습(Learning)-실습(Training)-마케팅(Marketing)으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LTM 교육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 방식을 도입한 Biz-9 Game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창의융합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과 특강은 물론 마케팅의 전과정까지 지원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식품영양과의 창업동아리 '과즙정춘'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이공대학교의 'PERFECT P-Cube' 교육은 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방형(Open-ended)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Paper), 시제품 제작(Prototype), 발표(Presentation)으로 이어지



조선이공대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을 이용해 시제품을 완성했다.

는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약을 맺은 산업체 실무자가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에까지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중심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었다. 조선이공대는 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체계를 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금 79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순천제일대학교는 2021년부터 혁신적 교수법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플러스(Hybrid+) 교육과정을 개발

해 운영 중이다. 한 학기를 2개의 텀(Term)으로 분할하고 동일 교과목을 전임교수와 협약기업 현장 교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교육 장소도 대학 강의실과 산업체 현장을 오가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매주 수업에 참여해야 했던 협약기업 현장교수의 부담도 덜고 짜임새 있는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NC 사업 3단계=10년에 걸친 교육부와 전문

대, 그리고 산업계의 노력으로 전문대와 산업계간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된 가운데, 3단계에 들어선 LINC 사업은 이전 단계의 산학협력 진화형 대학으로의 체질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학일체형 전문대학 육성으로 목표를 업그레이드했다. 전문대 LINC3.0에서는 신산업·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공교육을 융합 및 재구조화하고 산업체 인사가 정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편성·운영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맞춤형학과를 고도화하고 졸업생 재교육 및 재직자 교육에 확대한다. 산업체 재직자의 온라인 팀칭,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 학습(PBL) 등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산학연계 교육모델도 개발한다.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구축해 운영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교원참여는 늘고 처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관련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교원에게는 성과급도 지급된다. 교원의 산업체 겸직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학 공용장비를 개방하고 개별 대학간, 대학과 산업계 간 장비·특허·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및 통합적 운영체제 구축도 계획 중이다.

정중철 교육부차관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전문대 LINC 사업을 통해 참여대학별로 창의적인 노력과 차별화된 혁신 노력이 이어져 왔고, 긴밀한 산학협력력을 통해 취업과 창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시작하는 LINC3.0 사업에 보다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산학일체로 하나된 전문대와 협약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고 힘차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3년 연속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창업 자금·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초기창업패키지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대는 주관기관 사업 운영 실적과 지역창업 활성화, 창업 교육, 창업기업의 매출, 고용 등 창업 지원 성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6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전환됐다.

광주대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창업 교육

명문대학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유망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초기창업팀을 모집해 창업 공간과 자금 지원, 투자 연계,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창업동아리, 창업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완석 광주대 창업지원단장은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창업생태계 조성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45억원 들여 청소년 취업 지원

동신대학교(총장 최일)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한 대학일자리센터 후속사업으로, 동신대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나주시로부터 매년 7억5000만원씩, 최대 6년 동안 4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청년층에게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과 기능 등을 확대·개편했다.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으며 통합상담과 일자리발굴·매칭 등을 취업 지원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동신대는 지난 6년 동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정보공시 기준) 4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동신대 최일 총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통해 취업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대학 40개, 일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51개 등 91개 대학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한국어교육원, '교원 온라인 워크숍'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원장대형 이경)은 최근 한국어교육원 전체 강사 25명을 대상으로 '2021 동계 한국어교원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어교육원 소속 교원들의 실시간 한국어 수업에 대한 고충을 논의하고 비대면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익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선영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를 초청, '실시간 한국어 수업을 위한 온라인 도구 tools 활용'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실시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김우연 한국어 강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

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의 유형과 실제 활용 방법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어교육원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한국어강사와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온라인 교수법 등 다양한 온라인 특강을 마련해 강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